

다매체 시대의 아동문화 콘텐츠 〈칠칠단의 비밀〉 연구*

- 아동탐정소설,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의 매체변환을 중심으로 -

엄희경**

〈차 례〉

1. 다매체 시대, 아동문화 콘텐츠 〈칠칠단의 비밀〉
2.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
- '어린이 연속 모험극'으로의 재탄생
3.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
- 태권 영웅 '흑두건' 창조와 애국 코드의 결합
4. 〈칠칠단의 비밀〉 매체별 인물 비교로 본 매체변환 특성
5. 새롭게 탄생할 〈칠칠단의 비밀〉을 기대하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방정환의 아동탐정소설 『칠칠단의 비밀』이 다양한 매체로 변환되며 활용된 양상을 살펴 아동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탐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1970년대에 라디오 방송과 영화산업의 확산을 바탕으로 라디오 드라마와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로 매체변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폈다.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은 동아방송의 어린이 프로에서 '연속 모험극'으로 방영되었다. 신문 광고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 만화영화의 음반에 수록된 동극 등 실증 자료를 토대로 1978년 1월 30일부터 3월 10일 무렵까지 방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라

* 이 글은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주최, 방정환연구실(현 (사)방정환연구소) 주관으로 2017년 6월 (2017.6.10) 개최한 '제3회 방정환과 세계아동문학사 학술포럼'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춘천교육대학교 강사

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은 원작소설의 많은 부분을 각색한 ‘극장용 만화영화’의 제작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원작소설의 기본 내용을 토대로 ‘라디오 드라마’용으로 매체변환 하는 데에 주력했음을 밝혔다.

시나리오와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은 원작소설의 만화영화화 과정에서 원작소설에 없는 ‘흑두건’ 캐릭터를 창조하였다. 흑두건은 전통 아담의 신출귀몰하는 정의로운 캐릭터에 ‘태권 용사’의 이미지를 덧씌워 구원자이자 영웅의 역할을 하는 주연급 캐릭터이다. 이 캐릭터의 창출은 원작소설의 어린이 주체의 시선과 공동체의 연대와 단결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한편, 장시간 상영되는 만화영화에 반전과 통쾌감, 재미와 웃음, 장쾌한 액션을 선사하는 기능도 한다. 다매체 시대의 문화콘텐츠로서 <칠칠단의 비밀>을 새롭게 주목하면서 매체변환 과정에서 인물의 추가와 삭제, 주제 의식의 변화, 어린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 아동문학 작품의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방정환, <칠칠단의 비밀>, 다매체 시대, 매체변환, 아동문화 콘텐츠, 아동탐정소설,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

1. 다매체 시대, 아동문화 콘텐츠 <칠칠단의 비밀>

『칠칠단의 비밀』(북극성, 『어린이』 1926. 4~1927. 12)은 방정환이 창작한 첫 ‘장편’ 아동탐정소설로, 현대의 어린이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으며 읽히는 근대 아동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다. 잡지 『어린이』에 실린 연재물이나 1950~1960년대 출간된 글벗집의 단행본, 그리고 1980년대까지 출간된 방정환 선·전집에 수록된 『칠칠단의 비밀』은 일반 대중이 쉽게 구해볼 수 없는 출판물이었다. 1999년 사계절출판사에서 “원작의 뜻과 글맛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의 어린이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보았다고 밝히며 어린이용 도서로 출판한 것을 계기로 오늘의 어린이 독자들 도 『칠칠단의 비밀』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¹⁾ 이후 몇몇 출판사에서 그림작가를 달리해 재출간했고, 사계절출판사에서는 큰글씨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ebook이나 오디오북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

1) 사계절출판사에서 펴낸 『칠칠단의 비밀』은 1999년 3월 20일 1판 1쇄를 출판했고, 2015년 1월 31일 1판 30쇄를, 2016년 3월 29일 2판 1쇄를 출판했다. 1999년 첫 출판 이후 어린이 독자들이 꾸준히 찾는 책 중 하나이다. 『칠칠단의 비밀』(사계절, 1999; 2016) <일러두기>와 관련지 참조.

1999년 방정환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탐정·모험·추리물 등 대중문학 장르에 대한 학계와 평단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정환의 아동탐정소설도 본격적으로 조명되었다. 방정환의 아동탐정소설은 이성적 판단과 논리적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구의 전형적인 ‘응접실형 탐정’과 달리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열정으로 무장한 소년 특유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사건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리형 탐정’이자 ‘모험소설’ 양식이 강하다는 점, 일제 강점기 아동소설 중에서도 민족주의 서사와 공동체의 열망과 연대 의식이 강화된 작품이라는 점, 성인 대상의 범죄추리물과 달리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소설의 문법에 충실한 작품이라는 점, ‘인신매매’라는 당대 사회의 문제적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 박진감 넘치는 활극적 묘사와 실감이 돋보인다는 점, 인격화된 서술자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동정의 상상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에 주력했다는 점, 토도로프의 탐정소설 유형에 적용해 작가의 창작 의도와 목적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점들이 주목되었다.²⁾

이러한 연구들은 초창기 연구와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론에 기반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해방기 아동잡지 『소학생』에 제목이 바뀌어 연재되었던 「꼭마단의 비밀」의 정현웅 삽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아동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꼭마단’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중심으로 1920~1930년 아동소설을 고찰하는 등³⁾ 연구 대상과 소재의 확장으로 연구

2) 이선혜, 「방정환 동화의 창작 방법 연구: 탐정소설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06; 염희경, 「소과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07; 염희경, 「소과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14; 염희경, 「탐정소설, 「아동문학」 속으로 귀환」, 『어린이와 문학』 30권, 월간 어린이와 문학, 2008.1; 염희경, 김영옥 좌담, 「탐정소설로 시대를 헤쳐 가는 소년상을 꿈꾼다」(토론회 녹취록 정리: 박미혜), 『어린이와 문학』 31권, 월간 어린이와 문학, 2008.2; 최애순, 「방정환의 탐정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 30호, 우리어문학회, 2008.1; 최애순,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 식민지 조선의 탐정소설사」, 소명출판, 2011; 정혜영, 「소년 탐정소설의 두 가지 존재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7호, 2009.4; 조은숙, 「탐정소설, 소년과 모험을 떠나다 - 1920년대 방정환 소년탐정소설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우리어문연구』 38호, 우리어문학회, 2010.9; 송수연, 「식민지 시기 소년탐정소설과 ‘모험’의 상관 관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호, 2011.6; 장정희, 「방정환 문학 연구 - ‘소년소설’의 장르의식과 서사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3; 염형운, 「방정환 탐정소설의 지향점」, 『세계문화비교연구』 66집, 세계문화비교학회, 2019년 봄호.

의 다변화를 피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칠칠단의 비밀』은 방정환의 사상과 문학을 조명하는 차원뿐 아니라 아동탐정소설이라는 장르론의 관점에서, 곡마단이라는 특정 소재가 지닌 문화사적 관점에서 근대 아동탐정소설 중에서도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었다.

한편, 『칠칠단의 비밀』은 1920년대에 『어린이』지에 연재 발표된 이래 해방 이후 1950년대~60년대에 글벗집에서 김용환이 삽화를 그린 단행본으로 몇 차례 재출간되기도 했다.⁴⁾ 판을 거듭한 글벗집의 단행본 출판뿐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어린이 대상 라디오 드라마, 극장용 만화영화, 만화책, TV 만화영화 등으로 매체를 달리해 각색되었다.⁵⁾ 또한 만화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와 삽입곡, 동극을 수록한 음반이 제작 발매되었으며, 어린이 장난감(딱지, 가면)과 문구류(색칠공책) 등 부수적 산물을 산출할 만큼 주목 받는 아동문화 콘텐츠였다.

3) 장정희, 『『소학생』 수록 정현웅의 『곡마단의 비밀』(원제: 칠칠단의 비밀)』(1947~1948) 삽화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3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9.6; 금보현, 「1920~1930년대 아동문학 속 일상의 위기-방정환 이동규 김내성 작품 속 곡마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3.

4) 글벗집에서 출간된 방정환 글, 김용환 그림의 『칠칠단의 비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총 3권(1950년, 1954년, 1962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1권(1954년)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1950년 출판이라 밝힌 책의 판권지를 살펴보면 '단기 4283년 1.10 초판, **단기 4287년 1.15 삼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50년 초판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1954년에 발행된 3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62년 발행된 출판물의 판권지에도 '1962.7.1. 인쇄, **1962.7.5. 3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판권지 기록만을 볼 때 1954년판이 3판인지 1962년판이 3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글벗집의 『칠칠단의 비밀』은 1954년판 3권, 1962년판 1권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1950년판에 대한 소장 정보는 수정이 요구된다.

5) <칠칠단의 비밀>을 만화책이나 만화영화로 만든 것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장훈(본명 권기홍) 글·그림, 『77단의 비밀』(전 2권, 소년소녀사(곰든북스 만화 시리즈 ⑥, ⑧), 1979. 블로그 선달이(<https://blog.naver.com/r0u>)에서 책 표지 및 본문 일부를 확인함(2017년 1월 무렵 검색). 현재 이 블로그는 유지되고 있으나 자료는 확인 불가 상태이다. 2017년 필자가 확인할 당시 글과 그림이 극장용 만화영화 <칠칠단의 비밀>을 만화책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극장용 만화영화 <칠칠단의 비밀>(1978)의 원화는 백삼봉이 그렸는데, 장훈이 극장용 만화영화의 그림과 글을 본떠 만화책으로 출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관영 글·그림, 『봉천의 밤은 깊어』(한풍출판사, 1959); 이주영,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2014, 198쪽에서 재인용. (* **작품 미확인**)

손재수 각색, 『칠칠단의 비밀』 전 2권, 대교출판, 2004.

<칠칠단의 비밀> TV 만화영화: MBC 만화마당(예능) 방송 2008.9.18.~2008.12.18. (목 16시) 방송; 매직영상에서 2013년 3월 DVD로 제작. 상영시간 총 250분.



[그림1] 음반 <77단의 비밀> (앞면)



[그림2] 음반 <77단의 비밀> (뒷면)



[그림3] <칠칠단의 비밀> 어린이 장난감 딱지

다매체 시대의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관점에서 <칠칠단의 비밀>은 새롭게 조명할 만한 문제적 콘텐츠다. 필자는 『창비어린이』의 <한국 아동문학의 정전 10 작품을 꼽는다면?>이라는 아동문학연구자 13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정전 선정의 이유로 ‘역사성, 함의성(含義性), 현재성(소통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한국 아동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의 대표작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가,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작품인가, 현재의 다매체 사회에서 새로운 읽기가 가능한 다양한 소통 코드를 내장한 작품인가, 즉 다른 매체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작품인가 하는 점을 주목했다. 그런 관점에서 11인의 연구자들이⁶⁾ 방정환의 <만년 샐썸>를 꼽았던 것과 달리 방정환의 대표 단편 <만년 샐썸>를 대신해 『칠칠단의 비밀』을 선택한 바 있다.⁷⁾

<칠칠단의 비밀>은 원작 소설 발표 이후 50여 년의 시대를 뛰어넘어 일찍

6) 설문에 참여한 아동문학연구자 13인은 다음과 같다. 강정규, 권혁준, 김옥선, 김용희, 김자연, 류덕제, 배봉기, 선안나, 신헌재, 엄희경, 정선혜, 조은숙, 나가무라 오사무. 이 중 나가무라 오사무는 방정환 작품을 선정하지 않았고, 11인 모두 방정환의 「만년 샐썸」을 선정하였다.

7) 창비어린이 편집부, <한국 아동문학의 정전 10 작품을 꼽는다면?>, 『창비어린이』 35호, 창작과비평사, 2011년 겨울호, 23쪽; 엄희경, 설문 답변, 『창비어린이』 35호, 창작과비평사, 2011년 겨울호, 40쪽.

이 1970년대에 매체변환 문화 현상을 선도한 문제작이었다.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 2000)과 그림책 『구름빵』(한솔수북, 2004) 등이 2010년 이후 중요한 문화콘텐츠로 각광을 받으며 장르 확장, 매체변환, 상품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활용된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칠칠단의 비밀』은 판타지 성격이 강한 동화나 그림책과 달리 사회 현실을 강하게 반영한 아동 탐정소설이라 시대적 역사적 제약성이 강하고 매체변환의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 셀러이자 한국 아동문화 콘텐츠의 역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초창기 사례라 할 만하다.

각종 희귀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옛 자료 수집가들에 의해, 또는 특정 분야에서 취미 이상의 전문적 식견을 보여주는 이른바 ‘숨고’인 블로거들에 의해,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 연구자들에 의해 <칠칠단의 비밀>의 다양한 매체변환 작품과 문화 상품에 대한 대략의 기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 연구가 아닌 만큼 제공하는 정보에 오류가 있어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원작 소설 『칠칠단의 비밀』과 매체변환 작품의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매체별 특성과 아동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더욱이 아동문화 분야에서는 <칠칠단의 비밀>의 다양한 매체변환 작품에 대한 개괄적 양상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방정환의 아동소설 『칠칠단의 비밀』을 바탕으로 산출된 다양한 매체변환 콘텐츠 중에서 극장용 만화영화 <칠칠단의 비밀>(삼도필름, 1978)을 중심으로 매체변환 과정에서 발생한 인물의 추가와 삭제, 성격 변화 및 주제 의식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작 소설과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의 비교에 앞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중간 단계의 산출물인 극장용 만화영화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주목해 매체변환 과정에서의 변용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즉 ‘방정환의 원작 아동소설 - 이중헌 각색의 시나리오 - 박승철 감독의 장편 만화영화’로의 매체변환 과정을 통해 각 매체의 특성에서 연유한 변용과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방정환의

원작소설에서 극장용 만화영화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만화영화의 제작 기반이 되었다고 논의되었으나 라디오 드라마 대본과 방송 음원의 미발굴로 그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방송극) <칠칠단의 비밀>에 대해서도 당시의 신문 자료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 만화영화의 음반에 수록된 동극 등의 실증 자료를 토대로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동탐정소설’ 『칠칠단의 비밀』을 원천으로 다양하게 각색된 <칠칠단의 비밀>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 기존 연구의 대상과 주제를 확장하고 <칠칠단의 비밀>이 지닌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칠칠단의 비밀>의 매체변환 사례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은 원작인 아동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변환을 시도하는 아동문화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 - ‘어린이 연속 모험극’으로의 재탄생⁸⁾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은 방정환의 소설 『칠칠단의 비밀』을 원작으로 한 각색인데, 동아방송(DBS)⁹⁾의 어린이 프로 <무지개 극장>에서 방

8) 2장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 부분은 현재까지 라디오 드라마 대본과 방송 음원이 미발굴 상태라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기 어려워 매체변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었다. 더욱이 여타의 자료를 끌어와 필자가 추정한 부분들이 많다. 심사위원 선생님 한 분께서 이 논문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해 각주로 간단히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는 조언을 주셨다. 선생님의 조언에 깊이 감사드린다. 필자 또한 그 점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화영화의 포스터 문구를 토대로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가 극장용 만화영화의 제작 기반이 되었다는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칠칠단의 비밀>의 다양한 매체변환 사례에서 1970년대에 유행했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후 아동문화 콘텐츠 연구에서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논문의 체계적 통일성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처리하였다.

9) 동아방송(DBS)은 『동아일보』 발행인 김상만의 주도로 동아일보사가 경영한 상업 라디오 방송국으로, 1963년 4월 25일 개국하여 1980년 11월 30일 언론 통합법 조치로 KBS에 흡수 통합되었다.

영된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⁰⁾ 이밖에 라디오 드라마(방송극) <칠칠단의 비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당시 신문 자료를 살펴보면, 동아방송의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은 1978년 1월 30일(월) 저녁 5시 10분~5시 30분에 처음 방송되었고, 양진웅, 김정미, 오세홍, 권희덕, 김규식 등¹¹⁾ 성우들이 출연했다고 한다.¹²⁾ 1978년 2월 14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일본 곡마단을 따라 중국으로 떠나버린 동생 순자를 찾아 상호와 기호는 중국행을 결심한다. 곡마단장이 남겨놓은 의문의 편지를 손에 쥔 그들은 과연 어떤 비밀을 알아낼 것인지”로 그날 방송될 내용을 예고하기도 하였다.¹³⁾

대략의 내용 소개로 보아 당시 방송되었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은 방정환의 원작 소설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극장용 만화영화 <칠칠단의 비밀>은 ‘흑두건’이라는 인물 창조 등 원작 소설과 다르게 각색된 부분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개봉 당시 영화 포스터에서 1978년 방영된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기보다는 당시 ‘인기 라디오 연속극’으로도 방영되었던 작품을 영화화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성 문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홍보 문구를 근거로 극장용 만화영화가 1978년에 방송된 “라디오 드라마(방송극) <칠칠단의 비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는 기존 연구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방송사』(동아일보사, 1990)에 실린 <프로그램 기본 편성표>를 참고하면, 1977년 4월 1일(봄 개편) 편성 때 처음으로 월~일요일, 오후 5시 10

10) 영화 개봉 당시 광고 포스터에 “78년 동아방송 <무지개 극장> 인기 연속극”이라고 되어 있다 (『조선일보』 1978년 7월 20일, 5쪽; 『동아일보』 1978년 7월 22일, 6쪽; 『경향신문』 1978년 7월 22일, 6쪽). “1978년 동아방송의 무지개 극장의 인기 연속극으로 원작은 소파 방정환의 작품”(허인옥,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신한미디어, 2002, 67쪽)

11) 양진웅(DBS 2기 데뷔), 김정미(DBS 5기 데뷔, KBS 12기 공채 성우), 오세홍(둘리의 마이클 목소리, 짱구의 아빠 역), 권희덕(DBS 공채 14기 성우로 데뷔), 김규식(DBS로 데뷔, 1970년 KBS 성우극회 12기 출신, <독수리 오 형제> 남 박사 역).

12) 『동아일보』, 1978년 1월 28일, 6쪽.

13) 『동아일보』, 1978년 2월 14일, 6쪽.

분~5시 30분에 <무지개 극장-소년동아일보 뉴스, 연속모험극> 코너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977년 10월 1일(가을 개편) 편성에도 월~일요일 동일 시간대(5:10~5:30)에 <무지개 극장-소년동아뉴스, 모험극장> 코너가 그대로 유지되었다.¹⁴⁾ ‘어린이 연속 모험극’ 성격의 드라마는 1977년 4월 1일부터 1978년 3월 31일까지 월~일요일 오후 5시 10분~5시 30분에 동아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무지개 극장> 코너를 통해 방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칠칠단의 비밀>은 1978년 1월 30일(월)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최종 몇 회까지 방송했는지는 알 수 없다. 동아방송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에 관한 신문 기사는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단 2건뿐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동아일보』 2월 14일자 기사를 통해 2월 14일에 16회차 방송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개된 16회차 방송 내용은 원작 소설 총 33장 중 15장인 ‘중국으로 중국으로’(『어린이』 연재 당시의 장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만화영화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 56장면(scene) 중 43번째 장면(시나리오 장면 번호 39번)이다. 소설로는 17장의 전개를, 시나리오로는

14) 동아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1976년 4월 1일(봄 편성) 때부터 1980년 10월 1일(가을 편성) 때까지 편성되었는데, 해당 시기 중 1980년 봄 편성 때에만 어린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시기별 코너명과 방송 시간은 다음과 같다.

편성 연도	코너명	시간
1976.4.1	어린이 만세	월~일 5:10~5:30
1976.10.1	어린이 만세	월~토 4:40~5:00
1977.4.1	무지개극장	월~일 5:10~5:30
1977.10.1	무지개극장	월~일 5:10~5:30
1978.4.1	무지개교실	월~일 4:05~4:30
1978.10.1	무지개극장	월~일 4:05~4:25
1979.4.1	무지개교실	월~일 4:05~4:25
1979.10.1	무지개교실	월~일 4:40~5:00
1980.4.1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안 됨	
1980.10.1	어린이 만세	월~금 4:05~4:20
	국군 아저씨 안녕하세요	토~일 4:05~4:20

1977년 4월 1일부터 1978년 3월 31일까지 월~일요일 오후 5시 10분~5시 30분에 <무지개 극장> 코너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기본편성표(정기, 1963.4.25~80.10.1)>, 『동아방송사』, 동아일보사, 1990, 569~588쪽 참조).

18개 장면을 남겨둔 상태의 분량이다. 라디오 드라마가 원작 소설의 내용을 대체로 충실히 구현했다고 하더라도 라디오 드라마가 원작 소설의 장 구성을 그대로 따라 방송의 각 회를 처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작 소설의 장을 방송의 한 회분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한다면 17회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테고, 그 경우 3월 3일 즈음에는 방송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 <칠칠단의 비밀>은 실제로는 1주일 정도 더 방송되었다. 동아방송 <무지개 극장>의 <칠칠단의 비밀>의 후속 드라마는 <그림자를 잡아라!>였다. 『동아일보』 1978년 3월 14일자 동아방송 무지개극장 광고에 <그림자를 잡아라!> 드라마 내용이 광고되었다. 그 내용은 “미우주항공국에서 조국의 군수 발전을 위해 연구한 컴퓨터 테이프를 갖고 귀국한 김인호 박사. 간첩들은 코짱짱이란 하수인을 시켜 그 컴퓨터 테이프가 든 가방을 날치기하는 데서 사건은 시작된다. 이에 용감히 나선 김 박사의 조카 동훈 등 세 자매는 코짱짱이를 붙잡았으나… 출연: 김정미 설영범 등”(『동아일보』 1978년 3월 14일, 8쪽)이다. 이 광고를 통해 <그림자를 잡아라!>가 1978년 3월 14일에 첫 회가 방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칠칠단의 비밀>은 1978년 1월 30일(월)에 첫 방송되었는데 그 이틀 전인 1월 28일(토)에 광고를 했고, 1980년 2월 25일(월) 첫 방송을 한 <올리버 트위스트>의 경우에도 2월 22일(금)에 ‘2월 25일(월)부터’라며 예고 광고를 했다.¹⁵⁾ 한편 『동아일보』 1977년 12월 12일(월) 김내성 원작의 <쌍무지개 뜨는 언덕>이 방송된다는 광고를 보면, 사전 광고 없이 당일 ‘라디오 방송’으로 <쌍무지개 뜨는 언덕> 방송을 알리기도 했다. 그리고 타 방송사인 MBC 라디오의 어린이 연속극으로 방송했던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의 경우에도 1975년 12월 8일(월) 신문에서 후속물 <산타클로스의 작전>이 12월 11일(목)부터 방송된다고 알고 있다.¹⁶⁾

이런 정황들을 종합할 때 <칠칠단의 비밀>이 1978년 1월 30일(월)부터 <그림자를 잡아라!>를 처음 광고한 1978년 3월 14일(화) 직전까지도 방송되

15) 『동아일보』, 1980년 2월 22일, 8쪽.

16) 『경향신문』, 1975년 12월 8일, 8쪽.

있을 가능성이 크다. <칠칠단의 비밀>은 그 후속 어린이 드라마인 <그림자를 잡아라!>가 방송되기 전 주인 3월 11일(금)에는 적어도 종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작소설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10회분 정도의 분량을 더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이 개봉될 당시 영화 광고 포스터를 보면, “<77단의 비밀> 주제가 레코드판, 카세트 전국 레코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¹⁷⁾([그림4])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림4] <77단의 비밀> 포스터 (『경향신문』, 1978.7.22)

실제로 <77단의 비밀> 음반은 1978년 히트레코드사에서, 그리고 1986년 지구레코드사에서 제작 발매된 적이 있다.¹⁸⁾ 1978년 영화 개봉 광고에서 홍보한 ‘절찬리 판매중’인 음반은 1978년 히트레코드사가 제작한 것이다. 이 음반에는 총 6곡의 노래와 6편의 동극·경음악이 실려 있다. 수록된 6편의 동극·경음악은 <외로운 남매> <명충이와 동물들> <남매와 흑두건> <명충이와 대머리> <흑두건의 활약> <사라지는 흑두건>이다.¹⁹⁾ 음반에 실린 동극 <남매와 흑두건>을 확인해보면, 방정환의 원작 소설뿐 아니라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의 내용과도 다르다.

17) 『조선일보』 1978년 7월 20일, 4쪽; 『경향신문』 1978년 7월 22일, 6쪽; 『동아일보』 1978년 7월 22일, 6쪽.

18) 이중현 작사, 정민섭 작사·작곡, 《77단의 비밀》, 히트레코드사, 1978.(음반에 ‘제작 75.7.21’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정민섭 작사·작곡, 《77단의 비밀》, 지구레코드, 1986.(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 1978년 발매된 히트레코드사에서 제작한 《77단의 비밀》 음반에는 6편의 노래 <77단의 비밀 (우촌 어린이 합창단)> <형제별 (정여진 노래)> <외로운 남매 (우촌 어린이 합창단)> <흑두건의 노래 (우촌 어린이 합창단)> <명충이 아저씨 (우촌 어린이 합창단)> <외로운 남매 (이중창)>과 동극·경음악 6편이 실려 있다. 정민섭 작곡·지휘, 노래: 우촌 어린이 합창단, 독창: 정여진, 노래·지도 전준선. 히트레코드사, 1978.

(재미나게 살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pangjean/2208313516879>

승리의 빛 블로그 <https://blog.naver.com/kbrkjs/50133724473> 참조) (* 음반 실물 확인함)

(조심조심 그러나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

순자: 오빠, 어디 있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상호: 쉴 조용히 해. 단장과 대머리가 깨면 큰일난다고. 이 담만 넘으면 우린
엄마, 아빠를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순자: 하지만 이 담을 어떻게 넘어? 저렇게 높은데.

상호: 저쪽 고목나무를 타 넘으면 돼. 자 어서 와.

순자: 오빠, 손 잡고가

상호: 그래, 어서 따라와. (하락)

(〈남매와 흑두건〉, 《77단의 비밀 - 주제가 및 동극 수록집》,
히트레코드사, 1978.)

동극 〈남매와 흑두건〉 부분은 만화영화 시나리오에서는 ‘**씬 25** 〈**써커스 단 뒷담**〉에 해당한다. 음반에 수록된 동극 〈남매와 흑두건〉에서는 남매가 탈출하려 할 때 단장에게 들키고 그때 흑두건이 등장해 오누이를 도와주며 경음악이 흐른다. 시나리오와 극장용 만화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었다.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부분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어둠 속에 움직이는 그림자 둘

발소리 죽여 담 밑으로 붙는다.

다름 아닌 순자와 상호

자기보다 갑절이 되는 담을 향해 뛰어서 매달리는데

순간!

이들 남매를 포착하는 강한 후랏쉬

매달린 채 놀라는 순자와 상호

다름 아닌 독살스러운 단장부인이다.)

부인: 흥! 내 그릴 줄 알았다.

요 앙큼한 것들 어딜 도망칠려구.

(이중헌 각색, 〈77단의 비밀〉 시나리오 (가),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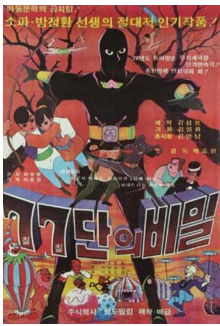
그렇다면 히트레코드사의 <칠칠단의 비밀>에 실린 동극은 동아방송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일 가능성은 없을까?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음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음반 <77단의 비밀>에 수록된 동극이 동아방송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의 일부 부분이라면, 동아방송 라디오 드라마에서 방정환의 원작 소설에는 없던 주연급의 ‘흑두건(명충이 아저씨)’과 조연급의 접시 돌리는 곡에서 ‘대머리’ 등이 추가되었고, 이러한 기본 내용과 구성이 극장용 만화영화에 그대로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화 상영과 동시기인 1978년에 제작 발매한 히트레코드사의 음반에는 흥미롭게도 ‘제작 75.7.21’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영화 상영이 1978년 7월 23일이었으니 3년 전에 이미 만화영화의 음반은 제작 완료된 것이다. 더욱이 만화영화의 주제가인 <칠칠단의 비밀>은 ‘작사 이중현, 작곡 정민섭’으로 되어 있고, 노랫말에 방정환 원작 소설에 없는 ‘흑두건’이 등장한다.

음반에 실린 동극은 동아방송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의 일부 내용이라기보다는 만화영화 제작을 앞두고 이중현이 구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음반 삽입용으로 별도로 만든 동극일 가능성이 크다. 동극에서의 성우와 만화영화의 성우가 다른 것도 만화영화 제작 당시의 OST가 아니라 ‘별도 제작’일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음반의 제작 시기가 1975년이라 동아방송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보다 3년이나 앞선다는 문제도 있지만, 음반 삽입 동극이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면 동아방송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칠칠단의 비밀>의 글 작가도 만화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인 이중현이어야 한다. 라디오 드라마 작가와 시나리오 작가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로 MBC 라디오 연속극이었던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를 극장용 만화영화로 제작한 경우가 좋은 참조가 된다. 한승태에 따르면 “<마루치 아라치> 라디오 연속극의 원안은 김진희가 썼고, 각본을 민병권이 맡았다. 그리고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는 민병권의 각본을 송길한이 각색하였다. 그러나 실제 애니메이션 영화는 임정규 감독이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며 대폭 뜯어 고쳤다. 원작이 라디오

극본이다 보니, 작품의 곳곳에 영상적인 장면보다는 설명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아 시나리오를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스토리와 캐릭터의 설정에서 많은 부분 수정되었다.”고 한다.²⁰⁾

따라서 기존 연구처럼 “동아방송에서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되었던 작품을 극장판 만화영화로 제작했”²¹⁾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로서는 라디오 드라마 대본과 음원이 발견되지 않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라디오 드라마 16회차의 내용을 소개한 광고에서도 원작 소설의 내용 그대로이기에 동아방송의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는 방정환의 원작 소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라디오 드라마’용으로 매체변환 하는 데에 주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²²⁾ - 태권 영웅 ‘흑두건’ 창조와 애국 코드의 결합



[그림5] 극장용 만화영화 포스터(1978)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은 한국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동아방송에서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되었던 작품을 극장판 만화영화로 제작했고 SF나 로봇물 일색이던 1970년대 우리나라 극장 애니메이션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액션시대물이라는 새로운 시도의 독특한 작품이다. <77단의 비밀>은 특히 일제의 식민지 통치 시기를 주 배경으로 하며 77단을 친일 집단으로 설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반일의 성격

20) 한승태,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https://www.kmdb.or.kr/story/13/2081>)

21) 노승관·양경미 공저, 『한국 애니메이션 결정적 순간들』, 쿠키, 2010, 66~67쪽.

22) 블루미디어에서 2008년 6월, 1978년 당시의 극장용 만화영화 필름을 복원해 DVD로 제작 발매하였다. 상영시간 총 70분.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은 1979년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으로 MBC에서 오전 8시에 방송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1979년 5월 4일, 5쪽)

이 강하다.”²³⁾라고 평가 받는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서 냉전체제가 강화되었고, 국내에서도 유신정권 말기와 그 이념을 이어받은 신군부에 의해 국가적으로 반공이 강조되던 때였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볼 때 이 시기에 제작된 만화영화도 이러한 시대적 영향을 받아 한국 최초의 **반공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똥이장군 - 제3 땅굴 편>(서울동화, 1978)과 같은 반공 애니메이션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제작된 **스포츠 애니메이션**이 등장했다.²⁴⁾

1978년 7월 20일자 『조선일보』와 1978년 7월 22일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실린 <77단의 비밀> 만화영화 광고 포스터(그림4)를 보면, “**77년 여름방학은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78년 여름방학은 <77단의 비밀>/ “어린이 여러분 과연 77단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검은 가면은 누구일까요?/ <77단의 비밀> 주제가 레코드 판. 카세트 전국 레코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마루치 아라치”를 선물했던 [중앙] 극장이 또다시 78년대 여름방학에 드리는 새로운 영화!** 더위를 잊게 해줄 스틸과 묘기!/<77단이란 서어커스단의 이름이다>/ 1978년 7월 23일(일) 대개봉”이라는 문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화영화 <77단의 비밀> 개봉 광고에서 전 해의 여름방학 개봉작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삼도필름, 1977)를 언급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77년 한국 영화 관객 동원(서울 지역)에서 <겨울 여자>(585,775명), <고교야개>(258,978명)에 이어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가 164,143명 동원으로 3위를 차지한 흥행 성적 때문일 것이다.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는 MBC 라디오의 인기 어린이 연속극을 만화영화화한 작품으로, ‘중앙’ 극장에서의 상영, ‘삼도필름’에서 제작한 만화영화라는 점²⁵⁾에서 <77단의 비밀>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제작, 기획, 촬영, 배경, 음악 부문에서도 동일 인물이 담당하였다.²⁶⁾ <77단의 비밀> 개봉을 앞두고

23) 노승관·양경미 공저, 앞의 책, 66~67쪽.

24) 노승관·양경미 공저, 위의 책, 74쪽.

25) 허인욱, 앞의 책, 65쪽.

26)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제작 김상용, 기획 김일환**, 총지휘 박용우, **제작 담당 김방남**, 촬영감독

전년도 대흥행작의 명성에 힘입어 흥행몰이하려는 상업적 전략이 담긴 홍보 문구였다. 삼도필름은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의 후속편 격으로 1977년 말 1978년 초 겨울방학에 <전자인간 337>을 상영하였는데, 이후 배급 제작한 <77단의 비밀>과 제작, 총지휘, 기획, 미술감독, 음악 부문에서 동일한 인적 구성으로 진행하기도 했다.²⁷⁾

이러한 유사성뿐 아니라 <77단의 비밀>은 원작 소설의 만화영화화 과정에서 원작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전통 야담의 캐릭터 ‘흑두건’에 ‘태권 용사’의 이미지를 덧씌워 주연급 캐릭터로** 창조해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7단의 비밀>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불멸의 명작”(만화영화 광고 포스터 문구 [그림4 참조]의 만화영화화라는 점과 “그 당시의 SF, 로봇물, 반공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액션시대물’이라는 점”²⁸⁾이 주요하게 평가 받았다. 그렇지만 앞 시기 한국 장편 만화영화의 흥행작인 <로봇 태권V>(1976),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1977)의 **‘태권’ 계보를 잇는 악당 퇴치 히어로물**로서 한국 장편 만화영화의 주류적 계보와 주요한 코드를 공유한 작품이기도 하다. 즉 대중적 흥행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만화영화로서 선악 대결이 선명한 ‘악당 퇴치’ ‘무적의 히어로물’로서의 특징을 **태권 ‘흑두건’**이라는 캐릭터 창조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극장용 만화영화 <77단의 비밀>은 방정환의 아동탐정소설 『칠칠단의 비밀』을 원작으로 삼아 각색한 시나리오 <77단의 비밀>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즉 ① 방정환의 아동탐정소설 『칠칠단의 비밀』 ② 이중헌 각색 시나리오 <77단의 비밀> ③ 박승철 감독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 <77단의 비밀>의 매체변환을 거쳤다.

조민천, 촬영 조봉동 (보) 임철규, 구성 김일남, 원화 홍형선, **배경 오용환, 음악 정민섭**, 각본 민병권, 각색 송길한, 감독 임정규, **제작 배급 삼도필름**. 중앙극장에서 상영. 각주 27번 참조.

27) <전자인간 337> **제작: 김삼용, 기획 김일환, 총지휘 김방남**, 각본 지상학, 구성 김일남, 원화 홍형선, **배경 오용환**, 촬영감독 조봉동, **음악 정민섭**, 감독 임정규, **제작 배급 삼도필름**. 아세아 극장에서 상영.

<77단의 비밀> **제작: 김삼용, 기획 김일환, 총지휘 김방남**, 각본 이중헌, 원화 백삼봉, **미술감독 오용환, 음악 정민섭**, 감독 박승철, **제작 배급 삼도필름**. 1978년 7월 23일(일) 서울, 광주, 대전, 전주, 인천의 중앙극장, 인천극장, 부산의 부영극장 동시 개봉. (허인옥, 앞의 책, 65~67쪽)

28) 노승관·양경미 공저, 앞의 책, 66~67쪽.

만화영화 시나리오 작가인 이증현이 한국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 시나리오를 접수한 날짜는 1978년 2월 13일이다.²⁹⁾ 또한 이증현이 시나리오에서 ‘작의’를 작성한 날짜는 2월 9일로 되어 있다. 시나리오 <77단의 비밀>은 ‘모험 탐정 만화영화’라고 장르를 밝히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 이증현은 ‘작의’에서 방정환이 남긴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 중 “가장 흥미 있고 의협심과 모험을 주제로 한 『칠칠단의 비밀』을 선정한 이유”를 미국 월트 디즈니의 예를 들어 “상업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영화산업에 작가 이전에 **교육자적인 자세**로 작품에 임했던 숭고한 정신이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다고 고평한다. 한편, “우리 만화영화의 현주소는 ‘마징가나 로봇 인간 전자 인간 슈퍼맨’ 같은 감정도 없고 초인간적인 주인공을 주제로 기계문명의 영웅”을 만들어 “현실과 평행할 수 없는 공상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자극”을 준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만화영화를 통해 어린이에게 상상의 꿈을 주기 위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문학 작품 중에서 엄선 끝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작품을 만화영화로 옮기게” 되었다고 각색 동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작의 작품 집필 연대가 “1920년대 후반이므로 **시대적 감각과 사건 전개 및 인물에 있어 약간의 현대적인 ‘터치’**로 보충”했다고 밝혔다.³⁰⁾

“기계문명의 영웅”이 압도하는 당시의 SF, 로봇물 위주의 만화영화에 대

29) 국립중앙도서관은 극장용 만화영화 <칠칠단의 비밀> 시나리오를 2부 소장하고 있다. 맨 첫 장면(scene)만 삭제된 다른 판본이 존재한다. 맨 첫 장면이 있는 것을 시나리오(가), 없는 것을 시나리오(나)라고 임의로 구분하였다. 시나리오(가)에 있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씬 0 <까만 화면에>

해골, 까마귀, 부엉이, 늑대 울음소리, 바람 소리, 묘지, 천둥, 번개불, 유행처럼 움직이는 그림자.”

시나리오(가)의 경우 표지에 “한국공연윤리위원회, 78.2.13(접수), 제18호” 도장이 찍혀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77단의 비밀>의 심의 관련 서류와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공연윤리위원회에서 1978년 2월 22일 극(만화)영화 시나리오 심의 결과 보고를 했고, 몇 차례의 서류 절차를 거쳐 문화공보부가 1978년 7월 20일 영화검열 합격증을 교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영상자료원 (<https://www.koreafilm.or.kr>)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 <칠칠단의 비밀>은 방정환 서거 47주기인 1978년 7월 23일(일)에 극장 개봉을 하였다.

30) 이증현 각색(시나리오), ‘작의’, <77단의 비밀>, 삼도필름, 1978, 1~2쪽.

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과거의 아동문학 유산에서 만화영화의 원작을 구하고자 했음을 분명히 드러낸 ‘작의’이다. 그럼에도 방정환의 원작 소설과 달리 ‘흑두건’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기계문명의 영웅’을 대체한 또 다른 형태의 영웅 창조로 이어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중헌이 ‘작의’에서 밝힌 의도가 원작을 각색해 시나리오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 <칠칠단의 비밀> 매체별 인물 비교로 본 매체변환 특성

원작 아동탐정소설 『칠칠단의 비밀』을 ‘장편 만화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다시 극장용 만화영화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 매체가 지닌 특성뿐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허용 가능한 주제나 소재, 새롭게 의미 부여해 재창조할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더욱이 적지 않은 자본이 투자되는 극장용 만화영화를 제작하면서 관람객인 어린이의 욕구와 흥미뿐 아니라 이 영화를 어린이에게 보여주는 보호자의 입장과 영향도 고려하면서 흥행을 위한 상업적 전략을 고민했을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매체변환 과정에 복잡하게 작용했을 터이다. 4장에서는 매체별 인물 설정을 비교하여 삭제, 추가된 인물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주제, 매체의 특성을 살펴려고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원작 『칠칠단의 비밀』은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공연하는 일본인 단장이 이끄는 곡마단에 어릴 때 유괴되어 부모도 국적도, 서로가 친남매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학대 당하며 공중 곡예사로 길러진 오누이가 조선에서의 공연에서 외삼촌을 만나 자기 정체를 알게 되면서 곡마단에서 탈출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이야기이다. 탈출 과정에서 동생은 잡히고 혼자 빠져나온 오빠가 동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학생(한기호)의 도움을 받으며 기지와 꾀를 발휘해 곡마단에 잠입, 곡마단이 인신매매와 아편 밀매 범죄 집단임을 알게 되고 마침내 중국의 조선인협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동생을

구하고 그곳 회장으로 있던 아버지를 만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야기의 핵심은 오누이가 범죄 집단 칠칠단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재결합뿐 아니라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때 어린이 주체의 시선과 집단적, 공동체적 단결과 연대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표1] <칠칠단의 비밀> 매체별 인물 비교

장르/매체	등장인물
방정환 아동소설	상호, 순자, 한기호, 외삼촌, (어머니), 아버지, 단장, 단장 부인, 경찰(일본 총독부 경찰, 중국 봉천 경찰), 조선인협회 청년들, 문지기, 난쟁이(꼭마단 부하), 봉천 전중 여관 주인(일본인), 나카무라, 키다리, 털보, 요릿집 손님들, 창고 안에 갇혀 있던 세 명의 조선 소녀
이중헌 시나리오 ³¹⁾	상호, 순자, 기호, 단장, 단장 부인, 노인(외삼촌), 난쟁이(꼭마단 부하), 아버지, 봉천 전 중 여관 주인(왕후: 중국인, 문지기(거인), 주막집에서 술 먹는 사내들(요릿집 손님의 변형), 지하실에 갇힌 소녀들
	추가 인물: 명충이(흑두건), 독사, 콧수염, 대머리(접시 돌리는 꼭예사), 여인, 마라톤 선수들, 마라톤 경기 아나운서, 마라톤 길거리 관중, 흑두건 공개 수배 벽보 앞 사람들, 흑두건의 도움 받은 조선인, 동물(원숭이, 코끼리, 개), 기호(가짜 흑두건 역할), 해골(의인화), 주막집 주인
	삭제 인물: 경찰(일본, 중국), 조선인협회 청년들
박승철 만화영화	상호, 순자, 기호, 단장, 단장 부인, 노인(외삼촌), 난쟁이(꼭마단 부하), 아버지, 봉천 전 중 여관 주인(왕후: 중국인, 문지기(거인)
	추가 인물: 명충이(흑두건), 독사, 콧수염, 대머리(접시 돌리는 꼭예사), 여인, 마라톤 선수들, 마라톤 경기 아나운서, 마라톤 길거리 관중, 벽보 앞 사람들, 흑두건의 도움 받은 조선인, 동물(원숭이, 코끼리, 개), 기호(가짜 흑두건 역할)
	삭제 인물: 경찰(일본, 중국), 조선인협회 청년들, 요릿집(주막집) 손님들 (이상 원작에서 삭제)// 해골(의인화), 창고(지하실)에 갇힌 소녀들, 주막집 주인 (이상 시나리오에서 삭제)

[표1]은 매체별 인물 설정을 비교한 것이다. 원작이 지닌 핵심적 주제가 이중헌의 시나리오와 박승철의 만화영화로 각색되면서 추가 인물과 삭제 인

31)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상호, 순자, 기호, 명충이, 단장, 부인, 난쟁이, 독사, 노인, 왕후, 콧수염, 대머리, 아버지, 흑두건, 여인, 동물 가족 외 약간 (시나리오 <77단의 비밀>, 5쪽) 이 경우 다른 시나리오에서처럼 각 인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흑두건'의 경우 명충이가 복면 가장을 했을 때(진짜 흑두건)와 기호가 복면 가장을 했을 때(가짜 흑두건)로 나뉘는데, 명충이와 기호가 각자 일인이역을 하여 흑두건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별도의 등장인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을 통해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의 만화영화 포스터에서 전체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로, 원작에 없는 주연급의 ‘흑두건’이 제시된다. 이 인물은 원작의 어린이 주체의 시선을 밀어내고, 어린이들뿐 아니라 곤란에 처한 어른들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영웅으로 등장한다.

한편, 삭제 인물 가운데 일본 총독부 산하의 조선인 경찰들과 중국 봉천의 중국인 경찰들은 주제와 갈등 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즉 ‘상호(순자), 기호, 조선인협회(아버지)’ 대(對) ‘곡마단, 경찰’의 갈등 구조에서 범죄 집단을 비호하는 ‘경찰’이 삭제되고 갈등구조가 ‘상호, 기호(가짜 흑두건), 흑두건(명칭이 아저씨)’ 대(對) ‘곡마단’의 구도로 변모한다. 이 때문에 극장용 만화영화에서도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 집단 ‘77단’의 일탈 행위로 비쳐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 통치 체제의 모순이나 범죄 집단을 비호하는 국가권력으로서의 경찰의 실체가 가려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더욱이 악당의 편에 섰던 경찰과 대척점에서 오누이를 구출하는 데 도움을 준 ‘조선인협회’의 청년들을 삭제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단체들의 흔적도 동시에 사라짐으로써 원작의 민족주의 서사가 약화되는 문제뿐 아니라 집단적, 공동체적 연대와 문제 해결 과정이 축소되고 말았다. 즉 ‘조선인협회(아버지)’의 자리에 ‘흑두건(진짜 흑두건 명칭이 아저씨, 가짜 흑두건 기호)’이 들어서면서 집단의 연대와 공동체적 문제 해결 과정이 영웅적인 한 명의 뛰어난 인물로 대체되어 어린이 주체성과 집단적 연대의식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이 사라진 것이다.

창고 안에 갇혀 있던 조선 소녀들이 삭제된 점도 중요하다. 원작 소설에서 방정환은 칠칠단의 범죄를 어린이 노동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아편 밀매, 살해 등 당시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난 실제 중범죄 행위를 사실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만화영화로 제작하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77단을 독립군 명단을 확보해 독립운동에 타격을 주는 반민족 친일단체로만 제한적으로 그려냈다. ‘어린이’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는 소재(인신매매, 어린이 노동 착취와 학대, 살해 등)를 지우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린이를 둘러싼 범죄의 축소는 어린이 인권 해방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1920년대 방

정환의 어린이운동과 어린이문학의 탄생 배경이었던 당시의 사회 역사적 현실을 단순화하는 경향성이 드러난다.

한편 각색 과정에서 창조한 캐릭터 흑두건은 77단의 실체를 알고 잠입한 민중 영웅이자 민족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더욱이 영화 매체가 지닌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일본인 단장 내외가 서양식 복장(양복, 중절모, 지팡이, 드레스)으로 등장하고, 다수의 부하들이 중국식 복장으로 등장하여 반일(反日) 보다는 반중(反中)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시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영화를 제작한 1970년대 후반의 상황이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일본과의 우호관계 설정,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이 더욱 강했던 시기임을 반영하는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흑두건이 조선 독립군 명단 서류를 불태우는 장면, 그리고 악당인 ‘왕후’의 중국 전통 무술과 일본인 ‘독사’의 무술에 맞서 흑두건의 ‘태권도’, ‘흑두건’의 검은 복장의 목 부분에 그려진 ‘무궁화’ 문양에서도 민족의 표상을 강조하는 시각화가 두드러진다. 또한 만화영화에서 상호와 순자의 복장에도 일종의 ‘애국’적 코드를 부여한 시각화가 읽힌다.

상호는 흰색 티에 빨간색 조끼, 검은색 바지, 파란 벨트, 흰색 스타킹,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였고, 순자는 흰색 티에 빨간색 조끼, 빨간색 치마, 흰색 스타킹, 빨간색 부츠에 파란 벨트를 착용하였다. 위험한 공중 곡예를 하는 곡마단의 인기 곡예사로 강렬한 색으로 눈에 잘 띄기 위해 입은 옷이라 할 수 있지만 태극기의 4가지 색(빨간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을 자연스럽게 연상케 하는 시각적 효과가 도드라진다. 방정환의 원작 소설이 인물 설정과 주제, 서사를 통해 민족주의를 내면화하고 강화했다면 극장용 만화영화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주제가³²⁾를 통해 직접적으로 부각



[그림6] 태극기 색을 연상케 하는 상호, 순자의 복장

32) 칠칠단의 악당들을 처부수고자/바람처럼 나타나고 바람처럼 사라지는/무적의 용사, 태권의 왕자 흑두건이다/야! 야! 흑두건의 태권 앞에 당할 자 없네. (<77단의 노래> 주제가 일부, <77단의 비밀>,

하였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의 영웅화가 부각되거나 원작에서의 조선인협회와 경찰의 사제 등 민족주의를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균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편, 원작에 없던 ‘흑두건’을 만화영화에서 중심인물로 부각한 이유는 글 문학에서 영상물로 매체변환 과정에서의 특징도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힘없고 불쌍한 오누이와 약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나 악당을 물리쳐주는 “정의의 용사, 태권의 왕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면’의 존재는 그 자체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극적 캐릭터다. 현실에서 약자인 어린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작품 속의 약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강한 힘을 지닌 영웅적 존재가 나타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의 세계, 상상의 세계가 어린이들에게 건네는 마법과도 같은 위안이기도 하다. 만화영화가 창출한 흑두건은 현실의 약자인 어린이가 이야기 세계에서 약자들의 조력자이자 구원자로 등장하는 민중적 영웅에게 품는 동경과 기대를 충족해줄 수 있는 캐릭터다. 성장기 어린이가 정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투사하고 내면화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캐릭터다.

특히 모두에게 비웃음거리인 ‘멍충이 아저씨’가 약한 자들을 돕는 정의로운 인물 ‘흑두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는 반전과 통쾌감을 준다. 그가 현실에서 ‘멍충이 아저씨’로 존재할 때에 별이는 엉뚱함과 바보스러움은 작품 전체를 압도하는 슬픔과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재미와 웃음을 유발한다. 어린이 관중이 총 70분 동안 지속적으로 극적 긴장 상태, 더욱이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멍충이 아저씨’와 같은 역할은 만화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임에 분명하다. 장시간 상영되는 만화영화라는 매체를 고민할 때 각색 작가는 이러한 인물이 지닌 기능과 매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체변환 과정에서 원작이 지닌 주제나 가치는 어느 정도 변형될 수밖에 없

다. 정의의 용사 ‘흑두건’이 악당들을 일망타진하여 오누이를 안전하게 구출해 행복한 결말을 맞게 함으로써 어린이 관중들은 통쾌함과 안도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원작 소설이 담았던 어린이 주체의 시선과 공동체의 연대와 단결의 가치는 ‘흑두건’이라는 구원자이자 영웅의 출현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매체변환 과정에서 매체 특성을 고려한 캐릭터 창조를 고민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과제로 남는다.

한편 영웅 ‘흑두건’의 창조는 1920년대 방정환 시대의 어린이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대의 어린이의 존재 방식, 그 위상이 달라진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벗어나 이해할 수 없다. 1920년대 역사적 주체로 등장한 어린이라는 존재는 어른의 뭉까지를 감당했던 소년층, 청소년층을 아우르는 소년운동의 중심인물들로, 집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1970년대의 어린이는 학교와 가정이라는 제도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고 교육받는 존재로 그 주체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시기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1970년대에 극장용 만화영화를 향유한 관람자로서의 어린이들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자, 특정 문화의 ‘소비자’로서의 어린이로 새롭게 발견되던 시기의 존재이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어린이운동의 주체로 여겨지던 시기가 아니었다. 칠칠단이라고 하는 포악한 어른들로 구성된 폭력적인 범죄집단을 상대하기에는 이 시기의 어린이는 미약한 존재,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위치 지어진 시대의 어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만화영화의 주인공 어린이는 ‘흑두건’이라는 영웅적인 어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그려졌다고 보인다. 만화영화에서도 원작이 지닌 주인공 상호의 자기 주도성과 활동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관중인 어린이들이 자기 동일시할 주인공이 마냥 나약하고 보호받아야만 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만 그려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정환의 아동탐정소설에서 독자가 공감하고 자기 동일시할 수 있는 주인공 상호와는 달리 만화영화의 관람자인 어린이들은 주인공 상호의 활동보다는 흑두건의 활약상에 더 몰입하고 열광하며 이야기의 구경꾼에 머

물기 쉬웠을 것이다.

그밖에 시나리오와 만화영화에서는 ‘곡마단’의 구성원과 곡마단 동물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인물의 추가는 신기하고 소란스러우며 호기심을 갖게 하는 곡마단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인물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추가 인물로 흑두건이 곡마단의 ‘명충이 아저씨’로 등장할 때 그의 어리숙함을 부각하기 위한 에피소드로 추가된 마라톤 경주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들, ‘흑두건’ 공개 수배에 몰려들어 이야기 나누는 군중 들을 들 수 있다. ‘흑두건’의 실체를 가리고 영화 전반에 웃음과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물이다.

만화영화에서 시나리오 단계에 있던 ‘해골(의인화)’, ‘창고(지하실)에 갇힌 소녀들’, ‘주막집(요릿집) 주인’ 등은 삭제되었다. 음향 효과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내는데 시각적 이미지가 강한 만화영화에서 주제와의 연관성도 높지 않은데다 지나치게 공포를 자극하는 과장된 소재인 ‘해골’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인신매매 소재를 축소하기 위해 ‘창고에 갇힌 소녀들’도 삭제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어린이용 만화영화에서의 심의 규정에 따른 삭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총 33장의 원작 소설과 견줄 때 56 장면(시나리오 나 의 경우 55 장면)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와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만화영화에서 추가된 장면은 명충이의 어리숙한 행위가 일으키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썸 4~9/썸 20~21)이나 흑두건(기호가 변장한 가짜 흑두건, 명충이 아저씨가 변장한 진짜 흑두건)이 맹활약을 펼치는 부분이다.³³⁾ 특히 방정환의 원작 소설에서 상호와 기호는 어느 한쪽이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관계였다.

반면, 만화영화에서의 기호는 상호 남매가 탈출하도록 계획을 꾸미는 일부 터 결정적인 순간에 탈출을 도와주고 가짜 흑두건으로 맹활약을 펼치는 등 상호보다 우위에 서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한다. 만화영화의

33) 가짜 흑두건(기호)이 맹활약을 펼치는 장면: 썸 21~24, 썸 29~30, 썸 37, 썸 48, 썸 51~54

진짜 흑두건(명충이 아저씨)이 맹활약을 펼치는 장면: 썸 3, 썸 15, 썸 18, 썸 40, 썸 43, 썸 54~55

기호는 흑두건 복면을 쓰고 ‘가짜 흑두건’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처럼 소년의 가면을 쓴 어른의 분신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 이처럼 만화영화에서 흑두건이 활약하는 장면이 대폭 추가되면서 원작 아동탐정소설에서 상호와 기호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피와 기지, 변장술로 모험을 감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은 삭제, 축소되고 그만큼 이슬이슬한 재미가 주는 극적 긴장감도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주체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후퇴하고 말았다.

그 외에 원작 소설의 3장, 4장에서 “이상한 노인”(외삼촌)이 등장해 오누이와 눈물 어린 상봉을 하는 부분이 만화영화에서는 10개 장면(썸 2, 썸 11~19)으로 늘어나면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장면에서 <외로운 남매>라는 삽입곡과 슬픈 곡조가 강한 경음악이 흐르면서 슬픔의 정조는 한층 강화된다.

원작 소설과 다른 또 다른 설정으로, 만화영화의 프롤로그 부분의 공간 배경으로 ‘화장장’(썸 1)이 등장한다. 이 장면은 ‘77단의 비밀’이라는 범죄 조직의 은밀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돋우는 장소로, 상호가 순자를 구하기 위해 단장을 미행하면서 ‘공동묘지 길’(썸 49), ‘폐허가 된 화장장’(썸 50)을 걷고 이때 천둥 번개 치는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도 어우러진 공간적 배경 설정은 영상과 음향으로 공포감을 한층 강화하는 추가적 장면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이 장면에 “해골” “해골 위에 앉아 있던 까마귀” “왕방울 만한 두 눈이 더욱 커지며 몹시 무섭다는 듯 양쪽에 짧은 날개로 두 눈을 가리며 바르르 떠는” 부엉이, “늑대의 울음소리” “음산하게 불어오는 바람소리” “하늘을 가를 듯 진동하는 천둥과 번갯불”, “유령처럼 움직이는” “해골을 밟고 다가오는 그림자” “유령과 같은 묘비” “해골이 흔들거리며 킬킬”거리는 모습들을 그려 넣고 있다. 원작에 없는 이러한 요소들이 만화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에서 추가된 부분이다.

그런데 실제 제작된 만화영화에서는 천둥, 번개, 묘비와 공동묘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만을 연출할 뿐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공포스러운 소품들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설을 갖춘 극장에서 표현될 때 어린이들에게 지나치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축소되었

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상호에게 덮친 77단 조직원들이 “단숨에 죽일 듯 흥기를 내러치려는” 대목에서 흥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덤빈다든지 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과 유사한 처리이다. 매체변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이라 할 수 있다.

5. 새롭게 탄생할 <칠칠단의 비밀>을 기대하며

이 연구에서는 방정환의 원작 아동탐정소설 『칠칠단의 비밀』을 원천 삼아 1970년대에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 극장용 만화영화로 매체변환 된 작품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매체변환 과정에서 인물의 추가와 삭제, 시각적 이미지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된 ‘민족’ 표상 문제, 영웅적 조력자 흑두건 캐릭터 창조가 지닌 성과와 문제점, 사회 역사적 변화 과정과도 맞물린 어린이 주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칠칠단의 비밀>이 지닌 아동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칠칠단의 비밀>이 이처럼 타 매체로의 다양한 변환이나 부수적 상품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째, 방정환이 아동문학, 아동문화에서 늘 강조했던 ‘재미와 유익’의 두 코드가 원작 『칠칠단의 비밀』에 잘 담겨있기 때문이다. 즉 서사의 긴장감이 이야기하는 아슬아슬한 재미와 범죄 집단을 물리치고 헤어진 가족과 결합하며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작품이 지닌 주제의식과 시대의식 등은 작품성, 교육성, 대중성으로 어린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둘째, 어린이에게 이 작품이 전달되기까지 중개자 역할을 하는 어른에게도 ‘방정환의 대표 작품’이라는 신뢰감, ‘재미와 유익’이라는 두 요소가 뒷받침하는 ‘좋은 작품’이라는 관점이 주요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셋째, 방정환이 아동문학과 어린이운동에 주력하기 이전부터 그림과 사진, 연극, 동화구연과 강연, 영화(활동사진) 등 시청각적 요소와 근대 과학 기술이 융합된 복합적 장르 특성을 지닌 종합예술과 매체에 관심이 높았던 사실

도 중요하다. 방정환의 아동탐정소설은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다양한 매체 예술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그의 다른 작품과 견주어도 매체변환의 잠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1970년대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대중적 보급과 영향이 강해지던 때로 라디오 연속극뿐 아니라 영화산업으로서의 극장용 어린이 만화영화의 대중적 흥행과 파급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시대이다. <칠칠단의 비밀>은 그러한 시대상과 매체에 따라 적절히 변용되어 이야기될 만한 이야기성과 시청각적 요소가 강하게 있는 작품이다. 즉 다매체 시대에 <칠칠단의 비밀>은 매체변환에서 성공을 거둔 만한 요소를 내장한 매력적인 아동문화 콘텐츠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칠칠단의 비밀>이 갖는 아동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와 의미에 주목한 연구는 부재했다. 이 연구에서는 <칠칠단의 비밀>이 지닌 아동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살피기 위해 1970년대에 방송, 영상 매체의 확산과 더불어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와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로 각색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당시의 광고와 동아방송의 프로그램 편성표를 근거로 ‘어린이 라디오 모험 연속극’으로 방송된 <칠칠단의 비밀>의 방송 일자를 추정해 보았다.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의 대본이나 실제 방송 음원을 확보할 수 없기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라디오 드라마’가 원작의 많은 부분을 각색한 ‘극장용 장편 만화영화’의 제작 기반이 되었다는 기존 연구는 오류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방정환의 『칠칠단의 비밀』을 주목할 만한 한국 아동문화 콘텐츠로 조명하면서 원작 소설과 만화영화 시나리오, 그리고 극장용 만화영화를 대상으로 인물 비교와 주제 변화 등 매체변환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매체 시대의 아동문화 콘텐츠 <칠칠단의 비밀>에 대한 연구는 아동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다양한 매체변환을 시도하는 아동문화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향후 방정환 아동탐정소설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며 오늘의 시대 정신과 감각에 맞게 새롭게 현대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쓴’ 현대 공연

문화 콘텐츠(연극, 뮤지컬, 인형극 등)로서의 <칠칠단의 비밀> 등도 기대해 본다.

이 연구에서는 각 콘텐츠의 서사 비교 연구, 영상 콘텐츠가 지닌 다양한 기법과 장치, 음악, 화면 구성 등 매체 특성에 기반한 구체적 비교 분석, 각 콘텐츠가 생산·유통된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해석과 평가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칠칠단의 비밀>의 또 다른 매체변환 작품으로 2000년대의 산물인 만화책과 TV 연재 만화 등을 대상으로 현대적 변용 양상도 살피지 못했다. 아동문화 콘텐츠로서의 <칠칠단의 비밀>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1. 자료

- 북극성(방정환), <칠칠단의 비밀>, 『어린이』 1926.4~1927.12.
 방정환 글, 김용환 그림, 『칠칠단의 비밀』 글벗집, 1954; 1962.
 _____, 김병하 그림, 『칠칠단의 비밀』, 사계절, 1999; 2016.
 <77단의 비밀>(음반), 히트레코드사, 1978.
 방정환 원작, 이종현 각색 <77단의 비밀>(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나), 삼도필름, 1978.
 _____, 박승철 감독, <77단의 비밀>, 삼도필름, 1978; 블루미디어(DVD), 2008.
 _____, 손재수 각색, 『칠칠단의 비밀』(전 2권), 대교출판, 2004.
 _____, <칠칠단의 비밀>, MBC TV 만화영화(2008.9.18.~2008.12.18.); 매직영상(DVD), 2013.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블로그 선달이(<https://blog.naver.com/r0u>)
 블로그 재미나게 살기(<https://blog.naver.com/pangjean>)
 블로그 승리의 빛(<https://blog.naver.com/kbrkjs>)
 한국영상자료원(<https://www.koreafilm.or.kr>)

2. 단행본

- 간국대학교 동화외번역연구소 엮음, 『동화, 콘텐츠를 만나다』, 상상박물관, 2010.
 노승관·양경미 공저, 『한국 애니메이션 결정적 순간들』, 큐북, 2010.
 동아일보사, 『동아방송사』, 서울: 동아일보사, 1990.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14.
 이주영,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2014.
 최애순,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 식민지 조선의 탐정소설사』, 소명출판, 2011.
 허인옥,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신한미디어, 2002.

3. 논문

- 금보현, 「1920-1930년대 아동문학 속 일상의 위기 - 방정환 이동규 김내성 작품 속 곡미단을 중심으로」, 『현대 문학의 연구』 7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3.
 이선해, 「방정환 동화의 창작 방법 연구: 탐정소설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논문, 2006.
 송수연, 「식민지 시기 소년탐정소설과 '모험'의 상관 관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호, 2011.6.
 엄형운, 「방정환 탐정소설의 지향점」, 『세계문학비교연구』 66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9년 봄호.
 엄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07.
 _____, 「탐정소설, 아동문학 속으로 귀환」, 『어린이와 문학』 30권, 월간 어린이와 문학, 2008.1.
 _____·김영옥 좌담, 「탐정소설로 시대를 헤쳐 가는 소년상을 꿈꾼다」(토론회 녹취록 정리: 박미혜), 『어린이와 문학』 31권, 월간 어린이와 문학, 2008.2.
 _____, 설문 답변, 창비어린이 편집부, <한국 아동문학의 정전 10 작품을 꼽는다면?>, 『창비어린이』 35호, 창작과비평사, 2011년 겨울호, 40쪽.

- 장정희, 「방정환 문학 연구 - '소년소설'의 장르의식과 서사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3.
- _____, 「『소학생』 수록 정현웅의 「곡미단의 비밀(원제: 칠칠단의 비밀)」(1947~1948) 삽화 연구」, 『한국아동 문학연구』 3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9.6.
- 정혜영, 「소년 탐정소설의 두 가지 존재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7호, 2009.4.
- 조은숙, 「탐정소설, 소년과 모험을 떠나다 - 1920년대 방정환 소년탐정소설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우리어 문연구』 38호, 우리어문학회, 2010.9.
- 최애순, 「방정환의 탐정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 30호, 우리어문학회, 2008.1.
- 한승태, 「태권동자 미루치 아라치」(<https://www.kmdb.or.kr/story/13/2081>).

Research on children's cultural content <Secret of the Chilchidan> in the multi-media era

- Focusing on the media transition of children's detective novels, children's radio dramas, and full-length animated feature films for theaters -

Yeom Hee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alue of Bang Jung-hwan's children's detective novel *The Secret of the Chilchildan* (칠칠단의 비밀), which was converted into various media and used as children's cultural content. In particular, based on the spread of the radio broadcasting and film industry in the 1970s, I focused on the transmediation into radio dramas and feature animations for theaters.

The radio drama <The Secret of the Chilchildan> was aired as a "continuous adventure play" on Dong-A Broadcasting's children's program. Based on empirical data such as newspaper advertisements, radio broadcast program schedules, and children's dramas contained in the record of an animated film, it was estimated to have aired from January 30 to March 10, 1978. The radio drama <The Secret of the Chilchildan> has been evaluated as the basis for the production of "comedy animations" adapted from many of the original novels. However, based on the basic contents of the original novel, it was revealed that it focused on transmediation for 'radio drama'.

Scenario and theatrical cartoon film <The Secret of 77 Dan> created a "black hood" character that was not in the original novel during the process of animating the original novel. "black hood"(흑두건) is a leading character who

* C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cturer

plays the role of a savior and hero by overlapping the image of a “tai chi warrior” to the just character of a traditional Yadam(野談). The creation of this character had the problem of reducing the value of the child subject’s gaze and community solidarity and unity in the original novel. On the other hand, it also functions to provide reversal, exhilaration, fun and laughter, and cheerful action to long-running animations. While paying new attention to <The Secret of Chilchildan> as a cultural content in the multimedia era, I examined how the addition and deletion of characters, changes in subject consciousness, and changes in perspectives on children a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transmediat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a small clue to preparing useful implications for the content development plan of children’s literature works.

Key words: Bang Jeong-hwan, <Secret of the Chilchildan>, multi-media era, transmediation, children’s cultural content, children’s detective novel, children’s radio drama, full-length animated movie for theaters